

월드컵 소식

“태극전사들 16장 오르면 병역 혜택”

박주영·김영광 등 8명 대상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토고 격파의 여세를 몰아 16강 진출에 성공할 경우 병역 미필자인 총 8명의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대표팀내 병역 미필자는 막내인 박주영을 비롯해 김용대와 김영광, 김두현, 김동진, 이호, 김진규, 백지훈 등 모두 8명이다.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이들 8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체육요원’이라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총 34개월간 해당분야(축구)에서 선수 등으로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한 마디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고 33개월간 ‘본업’인 선수생활을 계속하면 병역의무는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의 일원으로 ‘4강 진출’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내는데 일조했던 송종국, 이천수, 설기현, 이영표 등은 현재 ‘체육요원’으로 편입돼있는 상태다.

또 다른 ‘4강 주역’의 일원인 안정환, 박지성, 김남일 등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33개월 이상 선수생활을 계속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현 대표팀 가운데 이들 15명을 제외한 이운재 등 나머지 8명은 상무 근무나 병역면제 등 어떤 형태로는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다.



잉글랜드 루니 부상 회복...그라운드 누벼

후반 교체 투입돼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격 첨병’ 웨인 루니(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침내 독일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지난 4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오른쪽 골절상을 당했던 루니는 16일 열린 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 트리니다드토바고와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후반 12분 잉글랜드의 ‘원더 보이’ 마이클 오인(뉴캐슬)과 교체 투입돼 33분을 뛴 루니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부상에 서 완쾌됐음을 알렸다. 주로 미드필드 지역에서 패스를 하며 공수를 조율한 루니는 특유의 배짱으로 상대 태클에도 전혀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였다. 슈팅은 비록 날리지 못했지만 상대 파울을 한 차례 유도해 냈다.

루니의 공격 가담으로 활기를 찾은 잉글랜드는 마침내 후반 38분 피터 크라우치의 선제골과 인저리타임에 터진 스티븐 제라드의 추가골로 2-0 완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루니는 21일 퀴른에서 열리는 스웨덴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와 16강전 등 최소한 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국·독일 플레이 가장 인상적”

독일월드컵조직위 홈페이지

한국과 독일이 2006독일월드컵축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친 팀이라고 대회조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16일 전했다.

조직위 홈페이지는 본선 진출 32개국에 이어져 한 경기씩을 소화한 가운데 경기내용은 “통계상 한국과 독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토고와 경기에서 64%의 공 점유율을 보였고 패스 성공률도 84%로 나왔

다. 독일은 코스타리카와 치른 개막전에서 63%의 점유율, 83%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회 홈페이지는 또 “한국은 441번의 쇼트 패스를 했는데 426회(97%)가 정확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이 기사는 “그러나 패스 정확도는 브라질이 8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패스 정확도와 함께 공 점유율을 추가로 감안해 가장 인상적인 팀으로 한국과 독일이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브라질 충분히 누를 수 있어”

에릭슨 잉글랜드 감독 전망

일본에 역전승을 거둔 호주가 19일 오전 F조 2차전에서도 세계 최강 브라질을 격파, 세계 축구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스벤 고란 에릭슨 잉글랜드 감독 등이 전망했다.

16일 호주 일간 ‘헤럴드 선’에 따르면 에릭슨 감독과 레오 베인하커트 트리니다드-토바고 감독은 호주가 브라질을

이기는 게 꿈만 아니라고 말했다. 스페인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사령탑을 맡았던 베인하커트 감독은 “호주는 승리를 원하고 있다. 선수들의 몸동작과 얼굴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미소를 보일 정도로 여유있게 플레이한다”고 강조했다.

에릭슨 감독도 “호주는 브라질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림 먹어야 한다”고 거듭했다.



16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경동고 경기. 1회초 중전안타로 진루한 성남고 이진범이 정상혁 타석때 2루도루를 감행했으나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흥고 정영일 깔끔한 마무리...8강 합류



북일 박용호 역전 솔로포...전주 꺾고 8강행
경동고, 성남의 끈질긴 추격 뿌리치고 승리

진흥고와 북일고, 경동고가 16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넷째날 경기에서 8강행 첫 차에 올라탔다.

▲북일고 4-2 전주고

북일고는 0-1로 뒤진 6회초 이동호의 좌전안타와 희생번트로 2사 2루를 만든 뒤 이필훈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7회에는 선두타자 박용호의 좌측 펜스를 넘기는 대회 두번째 홈런으로 1점을 추가, 역전에 성공했다.

북일고는 9회초 1사 2루서 장광호의 1타점 3루타에 이은 홈스틸로 2점을 더 달아냈다.

전주고는 4회 2사 1.2루서 이태주 타석때 2루 주자 김용비가 도루와 수비 송구실책을 틈타 선취점을 뽑아냈고, 8회말 1사 1루서 장지환의 3루타로 2-2 동점까지 추격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8강행의 꿈을 접어야 했다.

▲공주고 1-4 진흥고

진흥고는 2회말 1사 2.3루서서 강하승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초반 승기를 잡았다. 진흥고는 5회 1사 만루서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하고, 8회말 무사 1.3루

서 정영일의 좌전안타로 1점을 더 보탤었다. 공주고는 5회초 1점을 만회했으나 6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고교 탈삼진왕’ 정영일의 145km를 넘나드는 강속구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성남고 5-7 경동고

경동고는 1회말 첫 타자 여승주의 좌월 솔로포에 힘을 얻어 안타 2개와 볼넷 1개를 묶어 만루를 만든 뒤 김정무의 2루타로 2점을 보탤었다.

계속된 2.3루서 이선우의 적시타로 1회에 만 4점째를 올렸다. 경동고는 5회, 6회, 8회 1점씩을 착실히 더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

〈오늘의 무등기〉

〈16강〉
구미전자공고-배명고(10시)
경기고-대우고(12시 30분)
동산고-화순고(15시)
유신고-부산공고(17시 30분)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다. 2회와 5회 각각 1점씩을 만회한 성남고는 6회 볼넷 2개를 얻어 만든 2사 1.2루서 김태우의 3루타로 2점을 엮어냈다. 계속된 2사 3루서 중전안타로 1점을 더해 5-5 동점까지 승부를 끌고 갔지만 경기를 뒤집기엔 뒷심이 부족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홈런포 좌·우 구분없다

총 21개 중 오른쪽 13, 좌중간 5, 중앙 3개

방망이 한 자루로 일본프로야구를 평정하고 있는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스펙터클한 모험기가 월드컵 열풍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편은 물론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의 이목까지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승엽은 시즌 62경기째인 15일 오릭스 버펄로스전에서 올 시즌 세 번째 한 경기 2홈런을 몰아치며 21홈런으로 센트럴리그 및 인터리그 홈런 단독 1위(14개)에 올라섰다. 146경기를 치르는 센트럴리그에서 이승엽은 50홈런도 넘긴 최아울릴 거세다. 이승엽의 홈런을 분석해 보면 우안투수에게 15개, 좌안투수에게 6개를 빼앗겼다. 오른쪽 펜스를 넘긴 게 13번, 좌중간 방향 포함 좌측이 5번, 가운데 방향이 3개 있었다. 상대 투수와 방향에 있어 이승엽은 이미 좌우의 구분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유연한 스윙에 엄청난 파워까지 겸비한 이승엽은 몸쪽 공은 잡아 당기고 바깥쪽 공은 무리없이 밀어쳐 스탠드에 타구를 날리는 절정의 부헛살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직구를 받아친 것은 8번에 불과했고 슬라이더 6번, 포크볼을 비롯한 체인지업이 4번, 싱커, 커브, 역회전볼이 각각 한개씩으로 코너를 파고든 변화구를 집중 공략한 게 효과를 봤다. 이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대 배터리의 노림수를 간파했다는 방증이다.

이승엽이 홈런을 쏘아올린 18경기에서 요미우리는 10승8패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우즈 부진
6오버파 공동 68위

PGA US오픈 1R

9주만에 필드에 복귀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골프 첫날 극심한 샷 난조로 중위권에 그쳤다.

우즈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매머로네 윈드풋골프장 서코스(파70·7천264야드)에서 열린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 밖에 잡아내지 못하고 더블보기 1개와 보기 6개를 더해 6오버파 76타를 쳐 공동 68위에 머물렀다.

작년 이 대회 공동 15위를 뛰어넘는 성적 을 기대하고 있는 최경주(36·나이키골프·사진)도 우즈와 함께 76타를 쳐 공동 68위로 밀려나 출발은 좋지 않았다. 난코스에서 그 런대로 위험지역을 잘 피해간 최경주는 36개에 이르는 퍼팅 부진에 발목을 잡혀 버디없이 보기 6개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냈다.

2003년 이 대회 우승자 짐 퓨릭(미국)도 70타를 쳐 3년만에 US오픈 두번째 우승에 푸른 신호를 줬다.

유럽투어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데이비드 허웰(잉글랜드)과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도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려 첫날 리더보드 상단을 유럽파가 휩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체육 꿈나무 축제 울산서 팡파르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17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광주 989명(선수 752명, 임원 237명), 전남1천126명(선수 807명, 임원 319명)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상 최다인 1만6천669명의 선수단(선수 1만1천 810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30개 종목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광주는 약세 종목이었던 육상과 수영의 전력향상을 앞세워 종합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남은 수영과 인라인 롤러의 강세

소년체전 개막...열전 4일 돌입

광주 종합 9위, 전남 8위 목표

를 바탕으로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한 종합 8위를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17일 오전 10시 울산 동천 체육관에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